

# 새로운 모습을 찾다 동구유럽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고 있다.



여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교우들이 휴가 여행을 떠나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여름철에 진행하는 청소년 수양회, 여름성경학교, 지역 사회 봉사 및 여름 단기 선교 여행 등의 특별한 선교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전국에서 많은 단기 선교 사역팀이 나누고 섬기고 관계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평생을 두고 길이 기억할만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자신이 참여했던 첫 번째 단기 선교여행에 대해서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주 귀중한 교훈, 즉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결국에 그 다음 여러 해에 걸쳐 다른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장의 특권중의 하나는 해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2008년의 공식 총회장 방문은 동구유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장로교회는 헝가리와 우크레인의 개혁교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루마니아와 협력관계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여행 중에 루마니아의 개혁교단과 선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 주일 저녁에 저희 부부가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연결항공편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무려 9시간이나 늦게 현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척이나 피곤했지만 그래도 도착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의 해외 선교부 총무인 월레스 목사님이 이미 도착을 해 있었는데 항공사에서 짐을 잃어버려서 맨몸만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힘든 여행을 한 것인지요? (짐은 엉뚱하게도 핀란드로 날아갔고 이를 후에야 본인의 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현지의 오래된 역사에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현지의 개혁교회의 자랑스럽고도 도전이 되는 역사를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급한 세 나라가 구 소련의 침공을 당해 함락되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유와 자산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 차압을 당했습니다. 이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헝가리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개혁 교회의 생존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서 사회전반의 모든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후에 교회는 비로서 정부에 빼앗겼던 건물과 자산을 되찾았습니다. 건물은 너무 많이 무너지고 파손되어서 앞으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시설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가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더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땀 흘려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

그들은 풍요와 편안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곳을 방문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분들을 만나 대화한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지역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던 캐나다 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그동안 해외선교부와 장로교회 세계봉사개발국을 통해서 이 지역의 3개국 개혁교단과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지역에 나가서 헌신해서 섬기고 있는 본 교단의 세 분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메리 고롬비 자매는 부타페스트에서 헝가리 개혁교회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메리 자매는 동료들 가운데 정말 훌륭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레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빗 팬디 형제는 다방면에 은사를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의 어린 세 자녀들도 거의 선교사 수준입니다. 물론 그의 아내인 안나 자매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루마니아에는 브라이언 존스톤 형제가 음악과 영어교사로 나가서 헝가리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역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이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존재이유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모두가 선교현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일을 감당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 변화를 만드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우리는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